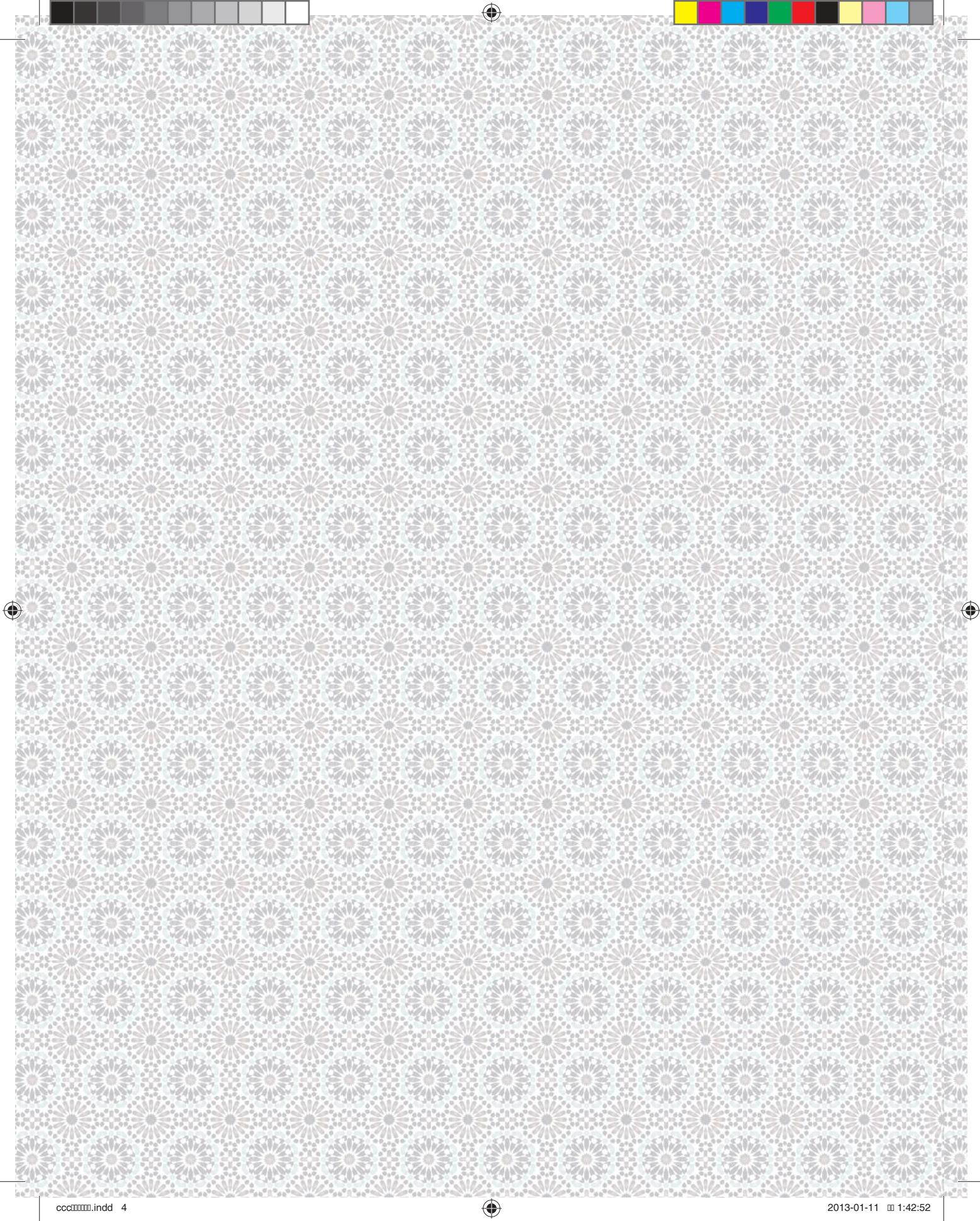


**CAN  
CROSS  
CULTURE  
PROJECT  
2012  
A SUBTLE  
PERFU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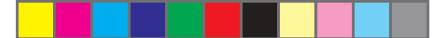
## CONTENTS

### Introduction

### Artist's Works

- Part 1. Shirin Neshat
- Part 2. Lalla Essaydi
- Part 3. Sissi Farassat
- Part 4. Lattefa Bint Maktoum
- Part 5. Manal Al Dowayan

### Artist's Talk



## Introduction





C.C.C.프로젝트(Can Cross Culture Project)는 캠퍼운데이션에서 매년 후반기에 기획하고 있는 해외 교류전으로, 공통된 소재나 주제, 혹은 매체를 다루는 작가들을 선정하여 각각의 작품세계를 통해 동시대 미술의 쟁점을 살펴보는데 전시의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두 해 동안 C.C.C.프로젝트는 국내작가와 해외작가를 매칭하여 문화적 배경과 사회적 환경이 다른 각국의 작가들이 어떠한 예술적 형태로 공통된 목소리를 만들어 내는지 살펴보는 전시로 기획이 되었습니다.

올해로 3번째 전시를 맞게 된 C.C.C.프로젝트 〈A Subtle Perfume〉은 최근 빠른 사회적 변화를 겪고 있는 이슬람국가 출신의 여성작가 5인을 초대하여, 유사한 문화적 환경을 경험하고 성장한 예술가들이 지니고 있는 공통적인 고민과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전시에는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란출신의 작가 시린 네사트와 시씨 파라삿, 모로코 출신의 라라 에세이드, 사우나아 라비아 출신의 마날 알 도와얀,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에서 활동하고 있는 라티파 빈트 막토움이 참여하여, 현대미술을 통해 이슬람 여성들의 변화와 고민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낯선 문화로 인식되고 있는 이슬람 문화의 현대적인 접근으로 시도하고자 하였으며,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편협한 인식에 대해 새로운 이해의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C.C.C.프로젝트는 이러한 기회를 통해, 국제적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작품세계를 조명함으로써, 동시대 미술의 향방을 점검하는 기회를 만들 것입니다. 또한, 국제적인 문화교류의 기회를 제공하여, 국내 예술가들과 관계자들에게 폭 넓은 예술적 경험과 이해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캠퍼운데이션 CAN foundation 이사회

The C.C.C. Project (Can Cross Culture Project), a foreign-exchange exhibition held by the CAN Foundation in the latter of every year, aims to choose artists who address common materials, themes and media and thereby see the issues of contemporary fine arts. For the past two years, the C.C.C. Project has linked domestic artists with foreign artists to hold an exhibition in which there were attempts to see what common artistic voices are given by artists from many countries who have different cultural and social backgrounds.

This exhibition is a third C.C.C. project titled 〈A Subtle Perfume〉. It invites five female artists from the Islamic world that have undergone dramatic social changes in order to hear something about the concerns and concepts shared by the artists who grew in similar environments. This exhibition is attended by Shirin Neshat who has worked as an artist in America after having been exiled from Iran, Lalla Essaydi, from Morocco, Manal Al Dowayan, from Saudi Arabia, and Latifah Bint Maktoum, from the United Arab Emirates, whose contemporary fine arts objectively display the changes suffered by Islamic women and their concerns. This exhibition is intended to take a contemporary approach towards Islamic culture and provide a way of new understanding of the narrow recognition that has long prevailed among us.

The C.C.C. Project uses this opportunity to cast light on a variety of works with an interest in international issues. And it will give artists in this country the opportunity to have wide artistic experiences and form deep understanding.

The board of directors at CAN Foundation



## A SUBTLE PERFUME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에 일어났던 여성 운동은 계몽사상과 자유사상을 바탕으로 인본주의 관점에서 여성해방운동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여성의 참정권과 노동권이 주요 대상이었다. 이후 1970년을 전후 해서 다시 등장한 현대의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양성간의 평등을 지향한 바 있다. 페미니즘(feminism)은 성차별, 성에 따른 남녀의 불평등 존재의 인식과 시각을 제공해주는 거시적 이론으로서 이와 같은 억압을 폐지하고 남녀평등 사회를 지향하는 실천적 의지를 담고 있는 이념이다.<sup>1)</sup> 따라서 페미니즘은 여성됨과 여성성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에서 시작되며 성차별의 원인과 구조, 해결 방안에 대한 연구와 분석뿐만 아니라 남녀평등을 지향하는 기본 정신, 성차별주의에 대한 문제 인식까지 꼭 넓게 함유(含有)<sup>2)</sup>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페미니즘 관점에서 본다면 이슬람 문화에 있어서 여성의 지위는 서구 1800년대 말의 상황과 조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카멜 하삼 Kamel Hisham 박사는 '무슬림 여성의 인권'이라는 주제 강의<sup>3)</sup>에서 "코란에 명시되어 있는 여성의 역할과 가치, 결혼에 대한 가르침이 철저히 남성위주로 되어 있으며 많은 여성들은 단지 남성의 소유물로 취급되고, 처벌 또한 알라의 뜻으로 정당하게 여겨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코란에는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고 기록하고 있다"며 "알라가 여자를 창조한 것은 남성을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이며 여자의 생애는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고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 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현실을 5인의 이슬람권 여성작가들은 자신만의 시각으로 그들의 문제를 토로해 내고 있다. 쉬린 네샤트 Shirin Neshat는 이란에서 자진 망명한 뒤 현재 미국에서 생활하며 서로 다른 두 문화 사이의 경험을 토대로 무슬림 여성의 정체성을 형성한 사회적·종교적·정치적 현실을 사진, 비디오, 멀티미디어라는 매체를 동원하여 담아내고, 사회적·문화적·성적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이슬람 여성의 삶을 표현해 냈으나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서구미술계의 주목받아왔다. 이런 출신 시씨 파라사트 Sissi Farassat는 사진의 배경에 금속편 혹은 스팽글을 부착하거나 스티치 작업을 통해 사진의 전체적인 맥락을 제거하는 독특한 방법으로 여성의 이미지를 재생산하고 물리적 흔적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사회적으로 제한되고 억압받는 여성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내는 그녀만의 방식으로 보인다. 라이라 에세이디 Lailay Essaydi는 모로코 출신의 사진작가로서 모호한 상태이거나 화려한 장식적인 무늬들에 포획되어 있는 것처럼 표현된 여성 이미지들을 이슬람 전통건축에서의 문양과 대비시킴으로서 이슬람 사회에 만연해 있는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에 도전하는 작가이다. 아랍에미리트 출신인 라티파 빈트 막토움 Lateefa Bint Maktoum은 서로 다른 장소, 시간, 분위기의 사진을 마치 하나의 실제 이미지처럼 디지털 콜라주로 결합한 뒤 그 위에 유화 물감을 입히는 독특한 방법으로 제작된 그의 사진은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한 반응이다. 지나치게 발전하는 도시와 변하는 모습을 응시하는 여성의 모습은 변화되는 현대사회 속에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여성의 닫힌 이미지를 연상케 한다.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마날 알 도와얀 Manal Al Dowayan은 규정된 아랍 여성의 역할에 대한 고민과 함께 여성의 본질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작가는 사회·정치적으로 억압되고 제한되어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여성의 지위와 현주소를 다양한 오브제의 나열을 통해 드러내는데 이는 동시에 사우디 여성들이 사회적 역할을 확장할 수 없도록 막는 문화적 전통에 대한 질문을 야기하기도 한다.



김성희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예술기획전공 교수)

'사조思潮'란 생각의 틀을 말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들의 살아가는 가치관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삶의 한 부분이기도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페미니즘 미술이란 단순히 여성의 삶과 인권에 대한 사회적 보장과 인식의 문제를 다룬 예술장르라는 입장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화체제와 관련되어 있는 기존의 사회구조 자체에서 여성들이 차지하고 있는 삶의 문제를 다루는 미술의 한 장르라는 광의적인 측면으로 수용되어야 한다.

서구로부터 시작한 페미니즘은 역사적으로 이미 지나간 사조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제가 계속해서 다루어지는 것은 여성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일방적인 방식이 아니라 남성, 여성의 평등 가치를 토대로 사회구성원 간의 진정한 소통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시대 이슬람 문화권에서 여성의 문제는 세계적인 관심을 갖기에 충분한 환경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여성의 사회적 현실과 이에 대한 반응에 관심을 갖고 작업하는 중동지역 출신 여성작가들의 작업을 보여주는 〈A SUBTLE PERFUME〉전은 아랍 여성들이 처한 민족적, 사회적, 개인적 환경 속에서 겪게 되는 여성 억압문제, 여성성, 여성 정체성 인식, 민족 현실 자각 등 다양한 문제들을 여성의 시각에서 바라보며 작업 해온 5인의 작가 전시로서 요즈음 야기되고 있는 이슬람 문화권 하에서의 여성의 문제와 시각을 그대로 반영하는 내용을 담아내고 있다. 이 전시가 현대사회 속에, 이슬람 문화 속에 여성작가들의 미학적 체험과 욕구, 비전과 열망에 대한 소리를 전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1) 한국여성연구소, 『새 여성학 강의』 (서울: 도서출판 동녘, 2003), pp. 17-18.
- 2) 정미경(편저), 『오늘의 페미니즘, 세계여성운동』, (서울: 문원 출판, 2000), pp. 17-18.
- 3) 2003년 9월 1일, 중동선교회, 이슬람 선교 세미나.



## **A SUBTLE PERFUME**

The women's movement that took place between the late 1800s and the early 1900s is, from the viewpoint of humanism, understood as women's liberation movement based on the enlightenment and liberalism. And it aimed to gain women's political and labor rights. Around 1970s, the modern liberal feminism was in pursuit of the equality between both sexes. Feminism, as a macro-theory that can provide some recognition and view of the existence of inequality between man and woman, is an ideology that reflects the practical aspiration to construct society in which there is equality between man and woman, and to remove this oppression on women<sup>1</sup>). Accordingly, feminism stems from a basic question about femininity and femaleness. And it also includes a wide range of issues: research in a plan for solution, an analysis of it, a basic spirit in pursuit of equality between man and woman, recognition of problems of sexual discrimination, and so on<sup>2</sup>).

From this viewpoint of feminism, the position of women in Islamic culture is equivalent to that in the late 1800s. In his lecture titled The Islamic Women's Human Rights<sup>3</sup>), Dr. Kamel Hisham said that the role and value of women and the teaching of marriage mentioned by the Koran are all based on androcentric ideologies, women are dismissed just as men's possessions, and punishment imposed on women is also justified as Allah's will. He told that the Koran records the superiority of men over women, adding that it writes that Allah created women to provide pleasure to men, and that it states that women should live to give happiness to their husbands and raise their children well.

The five female artists raise some questions about this sex-discrimination reality from their own viewpoints. Shirin Neshat was exiled from Iran. Living in America, based on her experiences acquired between two cultures, she used such media as photos, videos and multimedia to reflect the social, religious, political reality in which to shape the identity of Muslim women and to express Sissi Farassat, an Iranian artist, uses a unique way of attaching metal pieces or spangles to the background of a photo or stitching them to remove the whole context of the photo, reproducing the image of femininity and showing physical traces. This seems her unique way of a symbolic expression of women who are socially oppressed. Lalla Essaydi, an artist from Morocco, gets the images of women, which remain unclear or seem seized by brilliant decorous patterns, to be in contrast to the patterns found in traditional Islamic architecture, defying the stereotype of women that prevails in Islamic society. Latifa Bint Maktoum, an artist from the United Arab Emirates, uses digital collage to combine photos of different places, times, and atmosphere with each other as though they were real images and then paint colors over them. Her photos produced in this unique way are a mirror of the changes that take place in her surroundings. Her pictures of excessively developing cities and women who stare at the too rapidly changing cities call to mind a closed image of women who have difficulty adapting themselves to modern society. Manal Al Dowayan, from Saudi Arabia, raises some questions about the regulated role played by Arabic women and its nature. The artist depends on a series of diverse objects to expose the position and reality of Saudi Arabian women who are socially and politically oppressed and restricted. This poses some questions about cultural tradition that prevents Saudi Arabian women from playing a role in society.



Sunghee Kim (Professor at Hongik University Graduate School)

Current of thought is said to mean a frame of thought, and simultaneously to contain our values so that it is part of our life. In this light, feminist fine art is not just limited to an artistic genre that addresses the problem of social security and recognition of women's life and rights. It should also be accepted, in a wider sense, as one of the genres that address the problems of life suffered by women in an existing structure of society related to a cultural system.

Feminism that started from the West may be said to be a historically obsolete trend of thought. Nevertheless, the reason that this issue has ceaselessly been addressed is that it is not just a way of claiming women's rights unilaterally, but that true communication between social members based on the value of equality between man and woman has become an important social issue. In this sense, the problems facing women in the Islamic cultural sphere have enough characteristics to attract worldwide attention.

The exhibition, *⟨A Subtle Perfume⟩*, displaying the works of female artists from the Middle East who have an interest in this social reality facing women there and the reaction to this phenomenon, is a show for the five artists who have worked by interpreting, from a female standpoint, a variety of problems such as oppression against women, femininity, recognition of identity as a woman, and disillusionment of national reality which have been suffered in their personal environments, a reflection of the problems facing women and the vision. I expect this exhibition to be an opportunity to see the artists' esthetic experiences and desires and communicate the voices on their vision and aspiration.

- 1) The Korean Woman Studies Institute, *⟨New Lecture on Women's Study⟩*, (Seoul: Publisher Dongnyeok, 2003), pp. 17–18.
- 2) Jang Mi-gyeong (Edited), *⟨Today's Feminism, World Women's Movement⟩*, (Seoul: Munwon Publisher, 2000), pp. 17–18.
- 3) September 1, 2003, The Middle East Missionary Society, A Seminar on Islamic Missionary Work



## 2012 C.C.C. Project <Subtle Perfume>

이슬람은 중동, 서아시아, 아프리카, 인도,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현재 약 15억의 신자를 가진 세계종교 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이슬람 사회는 문화와 정치, 사회 그리고 종교가 모두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 이슬람은 단지 신앙을 의미하는 종교로서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국가이며 문화인 셈이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낯설게 인식되어지는 문화이지만, 이슬람국가는 전 세계가 산업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산유국으로서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발전 해 왔으며, 한국과도 오래 전부터 경제적 협력으로 많은 교류와 활동이 있어왔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교류활동과는 달리, 이슬람은 여전히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종교이며, 그들의 문화와 생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다. C.C.C. 프로젝트 2012 <Subtle Perfume>전은, 오늘날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슬람국가들의 변화와 상실에 대한 문제들을 이슬람 출신의 다섯 명의 여성작가들을 통해 살펴보는 전시로 기획이 되었다.

<A Subtle Perfume>은 드러나지 않는 '은은한 향기'를 의미하는 은유적 표현으로, 작품을 통해 보여지는 이슬람 여성의 이미지에서가 아니라, 그 화면 넘어 작품을 제작하는 작가들의 경험과 기억을 통해 폐쇄와 개방이라는 양면적인 공간에 존재하는 이슬람 문화를 다양한 시점으로 관찰해 보는 기회를 갖고자 하였다. 이번 전시에 참여한 시린 네사트(이란), 라라 에세이드(모로코), 마날 알 도와인(사우디아라비아), 시씨 파라삿(이란), 라티파 빈트 막토움(아랍에미리트)은 각각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모로코에서 출생하였는데, 지역적으로도 거리가 있는 각 국가들은 이슬람교를 국교로 하는 이슬람국가라는 점과,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아랍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모로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는 아랍연합 가입국이며, 이란은 페르시아어를 사용하는 페르시아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아랍인은 전체 5%정도이다) 하지만, 각각 다른 이유로 서구화를 겪으면서 서로 다른 관점으로 기억하는 이슬람문화는 각각의 고유한 방법으로 표출되고 있다. 특히, 이슬람 내부와 외부의 시각체계, 특히 서구유럽과의 '차이'로 발생한 오리엔탈리즘과 여성의 정체성, 그리고 그들의 역할과 갈등에 대한 고민들을 경험자로서, 또한 관찰자로서의 역할은 오늘날 이슬람 현대문화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이다.

'20세기 디아스포라(Diaspora)'라 불리우는 이슬람국가들의 현대화와 국제화는, 그것이 정치나 종교적인 외부적인 영향이었던 개인적인 선택이었던 많은 이슬람 국민들이 모국을 떠나 서구유럽으로 이주하도록 하였으며, 세계화라는 이름 아래 해체된 국가관과 상실된 정체성에 대한 이주민들의 정신적 방황은 오늘날 그들의 현대 문화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주의 경험은 여성들에게 더욱 커다란 정신적 방황을 가져다 주었다. 외부적으로 또는 내부적으로 거대한 변화를 겪으면서 그들의 다양한 문화의 경험은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더욱 집중해서 고민 할 수 있게 하였고, '이슬람 문화'와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보다 객관적인 관점을 갖도록 하였다. 그러한 이유에서인지, 여성작가들의 작품은 개인에 대한 관찰이 강하게 표현되었으면서도, 매우 사회적이고 객관적인 이슈들을 담고 있어, 이들 작품 속에 표현된 여성의 이미지들이 자신을 말하는 것인지, 타인을 말하는 것이지 모호할 뿐 아니라, 내면의 보호하고 싶은 존재인지, 스스로 비판하고 싶은 존재인지 매우 혼돈스럽게 하고 있다.



## 민은주 (캠파운데이션)

국제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시린 네샤트는 자신이 태어난 이란사회의 문제, 특히 여성의 지위를 탐구하는 작업을 해오고 있다. 네샤트는 상처, 의미, 기억에 관한 보편적인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자신의 문화적 배경이 지닌 특성을 강조하였다. 오랫동안 '알라의 여인들(Women of Allah)'라는 흑백사진의 연작을 제작하였는데, 작품 속 인물의 손과 얼굴 위에는 페르시아의 캘리그라피를 마치 인체의 문신처럼 표현하여, 종교에 갇혀있는 여성의 모습을 강조하였다. 라라 에세이디 역시, 이슬람 캘리그라피가 노출된 배경을 사용하거나, 문자와 결합된 여성신체를 표현함으로써, 이슬람 여성들의 정체성에 대한 복합적인 현실을 은유적으로 언급하였다. 그녀의 '하렘(Harem)'시리즈는, 28년 만에 완성이 된 마리케슈궁의 하렘(궁에서 여성들이 기거하는 곳, 궁 가장 안쪽의 공간으로 폐쇄적인 공간을 말한다)을 배경으로 제작되었는데, 고립되고 은폐되어 진 곳에 남겨진 여성들을 통해 현대 이슬람 여성들의 잠자고 있는 연대감을 보여주고 있다. 마닐 알 도와얀의 〈I AM〉시리즈는 작가의 개인적 경험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사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여성들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이다. 각각의 사진에는 여성들의 직업을 상징하는 시물과 전통 장신구를 함께 배치하였는데, 이는 전통적으로 여성이 가정을 지키기 위한 역할과 상통하고 있음을 아이러니하게 보여주고 있다. 시씨 파라삿의 작품에는 현대적인 이슬람 여성들이 자주 등장한다. 그리고, 실, 스팽글, 구슬 등 여성들의 소유물이라 여겨지는 재료들을 사용하여 배경을 채워나가, 마치 이미지 속의 인물이 배경에 갇혀 있는 듯 표현하였다. 마지막으로 라티파 빈트 막토움은 사진을 회화적 방법으로 제작하여 마치 환상이나 꿈 속 같은 공간을 연출하였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화려한 색상의 차도르를 착용하였는데, 그 안으로 인물의 얼굴이 들어나지 않아 존재하는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 여성들의 현실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다섯 작가들의 작품에는 모두 여성 이미지가 직접적으로 표현이 되어있다. 그러나, 여성을 읽는 방법은 작가들의 경험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제시가 되었다. 그 유형을 살펴보면, 첫번째 여성은 남성과의 분리된 존재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이미지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화면 너머에는 남성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는, 이슬람문화 안에서 여성과 남성의 분명한 차이를 강조하며 고유한 역할과 위치에 대한 존중을 상기하도록 한다. 두번째, 여성은 보호하는 대상, 잠재된 힘의 대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서구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억압된 여성'이라는 이미지를 미묘한 차이를 통해 이슬람 문화권 안에서 잠재되어진 절대적 여성의 힘을 은유적으로 나타내었다. 세번째, 여성은 모호한 대상으로 표현하여 중립적인 위치를 강조하였다. 이는 전통과 현대의 경계에서 인식되는 가치관의 위태로움과 상실된 존재감에 대한 표현으로 여성의 존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인도 철학자 호미 바바(Homi Bhabha)는 한 문화가 어떻게 다른 문화에 대한 잘못된 재현을 통해 세계 질서 속에서 정치적, 사회적 지배력을 강화시켜나가는가를 연구하며, 정체성의 문제를 '무언가가 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슬람 여성 작가들의 다양한 시도들은, 그들의 문화 안에서 그리고 그 밖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구현하는 긍정적인 방법으로 제시될 것이다. 이는 단지 변화를 겪고 있는 이슬람국가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화(Globalism)라는 미래 지향적인 흐름 안에서 전통의 상실을 경험한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하나의 메시지가 될 것이다.



## **2012 C.C.C. Project <Subtle Perfume>**

Islam is a world religion with 1,500,000,000 believers throughout the Middle East, West Asia, Africa, India and Southeast Asia. But Islamic societies are in so culturally, politically, socially and religiously close relation with each other that Islam can play a role as religion and at the same time it is a nation and culture itself. Till now, Islam has been recognized as a strange culture to the Western society. But Islamic nations, as producers of oil, have, in fact, developed into the center of the world economy in the course of the global industrialization and they have long been in economic cooperation with Korea. Unlike this active social and economic communication with this country, Islam remains a strange and unfamiliar religion to most Koreans. In addition, Islamic culture and life are alien to them. The CCC Project 2012 titled <A Subtle Perfume> is designed to serve as an exhibition in which to take a look at the problems of the change and loss of Islamic nations through the works by 5 Islamic female artists who have been in the spotlight around the world.

<A Subtle Perfume> is a metaphoric expression for 'fine fragrance'. It is designed to act as an opportunity to make diverse observations of Islamic culture that is brought into existence at a space of both sides, namely both closed and open, by means of the experiences and memories of the five artists who make their works beyond the screen, not by the images of Islamic women that are seen through their works. Shirin Neshat (Iran), Lalla Essaydi (Morocco), Manal Al Dowayan (Saudi Arabia), Sissi Farassat (Iran), and Lattefa Bint Maktoum (the United Arab Emirates) who attend this exhibition were born in Iran, Saudi Arabia, the United Arab Emirates, Morocco, respectively. They share something in common, in that their nations are ones that have Islam as a national religion and that they are wholly or partially influenced by the Arabic culture (Morocco, Saudi Arabia, the United Arab Emirates are the member states of the Arab League, and Iran is composed of ethnic Persians who speak Persian, in which Arabic people account for about 5 percent of all its people). However, the nations have had different processes of Westernization for different reasons, and the Islamic culture that has been memorized from some different viewpoints has expressed itself after different fashions. In particular, as persons who have experienced a vision system of the internal and external Islamic worlds, especially the orientalism caused by the difference from the Western Europe and the identity of women, and deep concerns about their roles and conflict, their role as the observers will be a most important keyword for understanding contemporary Islamic culture.

'The modernization and globalization of Islamic nations that may be called the '20th-century Diaspora' has forced many Islamic people to choose to depart from their fatherland and migrate into the Western Europe, whether their choice is for external reasons such as a political or religious migration or for personal reasons such as a voluntary migration. The migrants' mental wandering over the outlook on nation and identity lost and destroyed under the name of globalization has diversely reflected itself in their contemporary culture. Especially, the experience of migration has brought great mental wandering to the Islamic women. As they have undergone internal or external great changes, these diverse cultural experiences have focused their undivided attention on the problem of 'identity' and led them to have more objective viewpoints of 'Islamic culture' and the 'role of women'. The works of the female artists—it may be for this reason—give a strong expression of their observations of persons, simultaneously including so social and objective issues that what they wish to express is unclear and confusing: whether the images of women expressed in



Eunju Min (CAN foundation)

their works are of themselves or of others, whether the images are of a being that they wish to protect in them or of a being that they wish to criticize in them.

Shirin Neshat, a world artist, has worked on finding out the problems in Iranian society, especially keeping an eye on the status of women. She places huge emphasis on the characteristics that her cultural background has, in order to express universal concepts of mental wound, meaning, and memory. She has long produced a series of black-and-white pictures named 'Women of Allah' that expresses the Persian calligraphy in the characters' hands and faces to emphasize the appearance of a woman seized by religion. Lalla Essaydi also uses a background in which the Islamic calligraphy is exposed, and expresses the body of a woman combined with letters to metaphorically mention the complex reality of the identity of Islamic women. Her series of *«Harem»* was produced against the background of a harem—a place in which women in a palace stay, that is, the most closed and inside space—of the Marakesh Palace. The picture of women who are left at the most isolated and closed place is intended to show a sense of solidarity that lies dormant in modern Islamic women. Manal Al Dowayan's *«I AM»*, based on her personal experiences, is a work that includes as the characters a diversity of women who play an important role in Saudi Arabian society. Modern Islamic women frequently appear in Sissi Farassat's works. She uses such materials as threads, spangles, beads, regarded as the possessions only by women, to fill the background, expressing the characters in the image as though they were surrounded in the background. Finally, Latifa Bint Maktoum takes photos in a pictorial way to produce a space as though it existed in a fantastical world or a dream. The women in her works wear chadors. And their faces are out of sight, an indication of the real world in which they both exist and do not exist.

In this manner, the works by the five artists express the images of women, directly or indirectly. However, they show different ways of reading women. A look at the type of expressing the image of women as follows: first, they use a way of expressing women as a being that is separated from men, hinting at the fact that there exist men beyond the screen although they do not appear in the image. This emphasizes a marked difference between man and woman, bringing to mind their unique role and the respect for their position. Second, it is a way of expressing women as an object that is to be protected and as an object of potentiality. It uses the subtle difference to express an image of 'oppressed women' understood from the Western viewpoint, metaphorically indicating the absolute power of women lying hidden in the Islamic cultural sphere. Third, it is a way of expressing women as unclear to emphasize their neutral position. This symbolically shows the existence of women by expressing the danger of values and the loss of a sense of existence, recognized on the board between tradition and modernity.

Homi Bhabha, an Indian philosopher, carried out a study of how a culture strengthens the political and social control over another culture by the former's false realization against the latter, saying that the matter of identity is concerning a 'process of imaging something'. In this sense, the diverse attempts made by those Islamic artists can be viewed as some affirmative ways of shaping their identity inside and outside their culture. This will be a very valuable message to all people who have gone through the loss of tradition in a future-oriented flow called globalization, as well as to people in the Islamic count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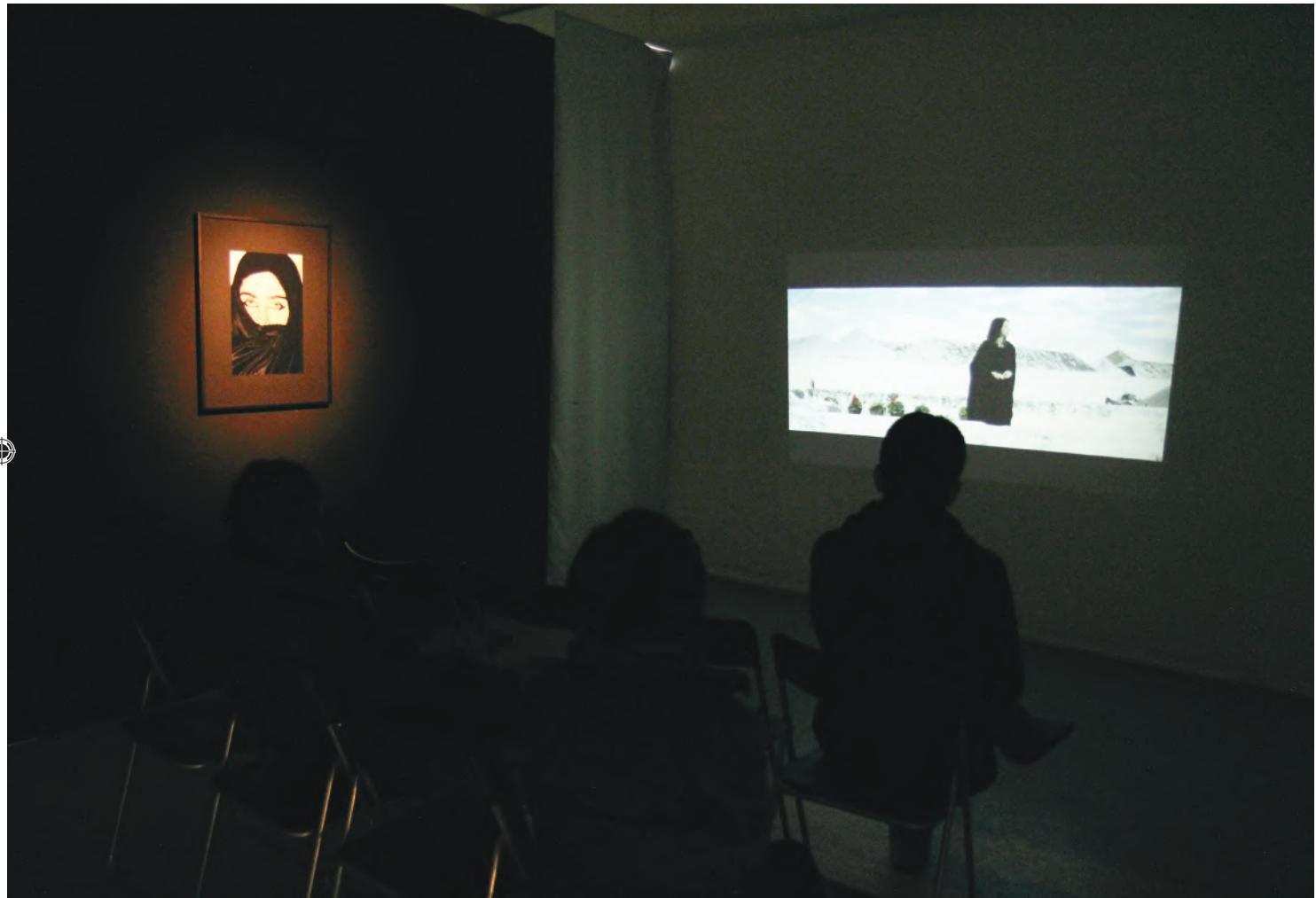
**Part 1.**

**Shirin Neshat**



## Shirin Neshat

시린 네샤트



전시전경





시린 네샤트는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이란 작가이다. 시린은 이란에서 자진 망명한 뒤 현재 미국에서 생활하며 서로 다른 두 문화 사이의 경험을 토대로 이슬람 여성의 정체성을 형성한 사회적, 종교적, 정치적 현실을 작품에 표현하고 있다. 그의 도발적인 사진, 비디오, 멀티미디어 작업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많은 전시기획자들의 주목을 받아 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그녀 최초의 장편 영화 〈남자 없이 사는 여자들, Women Without Men〉이 상영되는데 이 영화는 테헤란에서 사회적, 문화적, 성적 억압에서 벗어나려는 듯 보이는 네 명의 여성에 삶을 기록한 영화이다. 억압을 벗어나고자 발버둥이 영화로 그녀는 2010년 베니스 영화제에서 최우수 감독으로 은 사자상을 수상했다.

"나의 영화는 이란의 작가 샤르누시 파르시푸르 Shahrnush Parsipur의 실화소설을 기초로 하였다. 이 이야기는 이란이 미국의 쿠데타로 인해 사회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때인 1953년을 배경으로 사회적, 문화적, 성적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네 명의 여성의 삶을 기록한다. 등장인물들은 과수원에 모여 생활하며 그곳에서 자신들만의 유토피아적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고분분투하는데 이러한 여성들의 몸부림은 외세로부터 독립을 위해 싸우는 이란의 사회적 현실과 동일한 선상에서 생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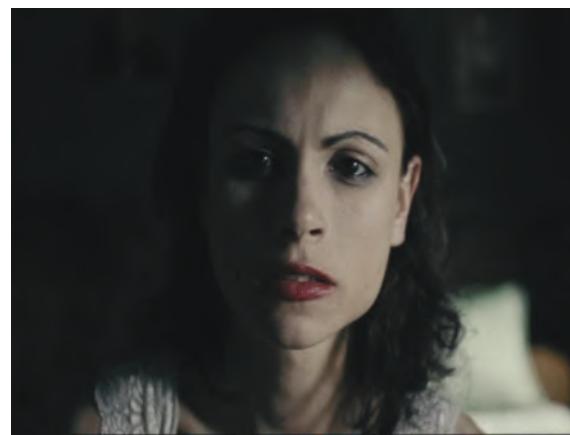
Shirin Neshat was born in 1957, Qazvin, Iran. She left Iran in 1974, aged 17, to study art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in Berkeley. Although she lives and works in New York, the United States, her artwork explores issues of her native society, Iran, especially the position of women. She uses the specifics of her background culture to create works that communicate universal ideas about loss, meaning, and memory. The revolution meant that she was unable to return to Iran until 1990 since starting her career as an artist. Between 1993 and 1997 she produced a series of groundbreaking black and white photographs called Women of Allah, in which she superimposed Farsi calligraphy on the hands and faces of her subjects. Around this time, Neshat began to turn her attention and her aesthetic sensibility to film, and her reputation was made in 1999 when Turbulent won the international prize at the Venice Biennale. This later became part of her solo exhibition at the Serpentine Gallery in London, 2000. She has since received a number of prizes, including the Grand prix of the Biennale in Korea. Neshat's work has been shown worldwide in numerous group and solo exhibitions. The most notable solo exhibitions are at the 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 1998; Dallas Museum of Art, 2000; Kunsthalle Wien in Vienna, 2000;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in Athens, 2001; Walker Art Center in Minneapolis, 2002 and the Stedelijk Museum in Amsterdam, 2006. She has also participated in many of the major biennials including Venice, Sydney, Johannesburg, Istanbul and the Whitney Biennial. Her work as a video artist has been recognized through her exhibitions and participation at various film festivals including the Chicago International Film Festival, San Francisco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nd the Tribeca Film Festival.



**I Am It's Secret**, Photography, 49x32cm, 1993



**Allegiance with Wakefulness**, Photography, 34.2x26.3cm, 1994





**Women Without Men**, Video, 95min, 2009





**Part 2.**

**Lalla Essaydi**



## Lalla Essaydi

랄라 에세이디



전시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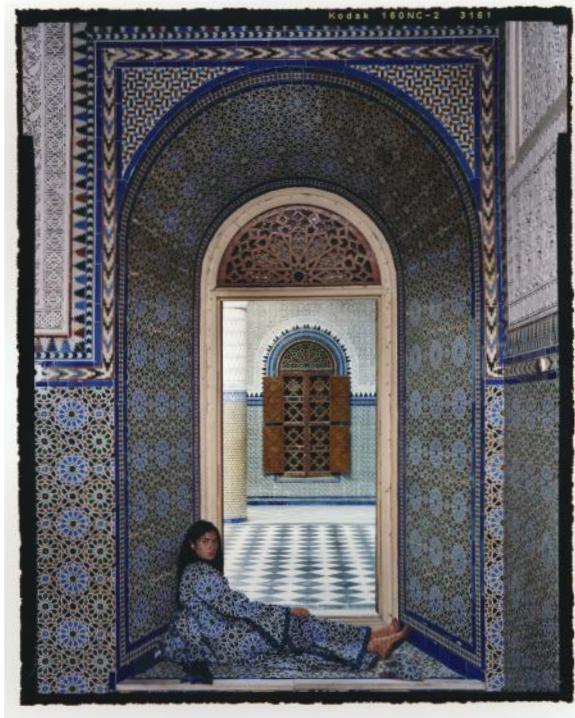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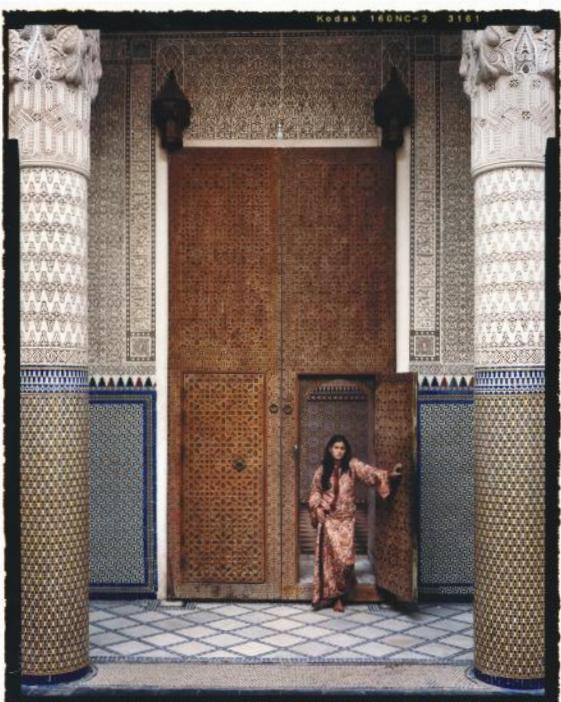
랄라 에세이디는 모로코 출신의 사진작가이다. 유럽과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그의 작품에서 이슬람 사회의 경험은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작품에서 이슬람 사회의 전형적인 여성의 이미지를 탐구하며 이슬람 사회에 만연해 있는 고정관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 그의 사진 속 여성은 고대 아라비아 서체를 암시하는 것과 같은 텍스트에 사로잡힌 것과 같은 모호한 상태이거나 희려한 장식적인 무늬들에 포획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마라케슈 궁의 하렘 지구를 배경으로 한 최근 연작 하렘 Harem은 이전의 두 작품—모여드는 땅 Converging Territories과 모로코의 여인 Les Femmes du Maroc—의 연속 상에 있다. 장식적인 패턴으로 덮여있는 여성은 공간 속으로 완전히 흡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관객을 향하고 있는 그의 응시와 불투명한 텍스트는 자신의 개별성과 독립성을 드러내는 듯하다. 이처럼 하렘에 가지고 있는 이중성은 여성에 대한 나아가서는 문학에 대한 규정과 고정관념을 무의미한 것으로 전락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Lalla Essaydi, 1956, is a fine art photographer from Morocco. She had grown up in Morocco, and lived in Saudi Arabia for many years. She now lives in New York City. She received an MFA at the School of the Museum of Fine Arts in Boston. Besides photography, she uses other media as painting, film and installations. Her art often contains Islamic calligraphy in combination with the representation of the female body. She addresses the complex reality of the Arab female identity. She has looked at the western painting tradition and recreated the paintings in an orientalist sett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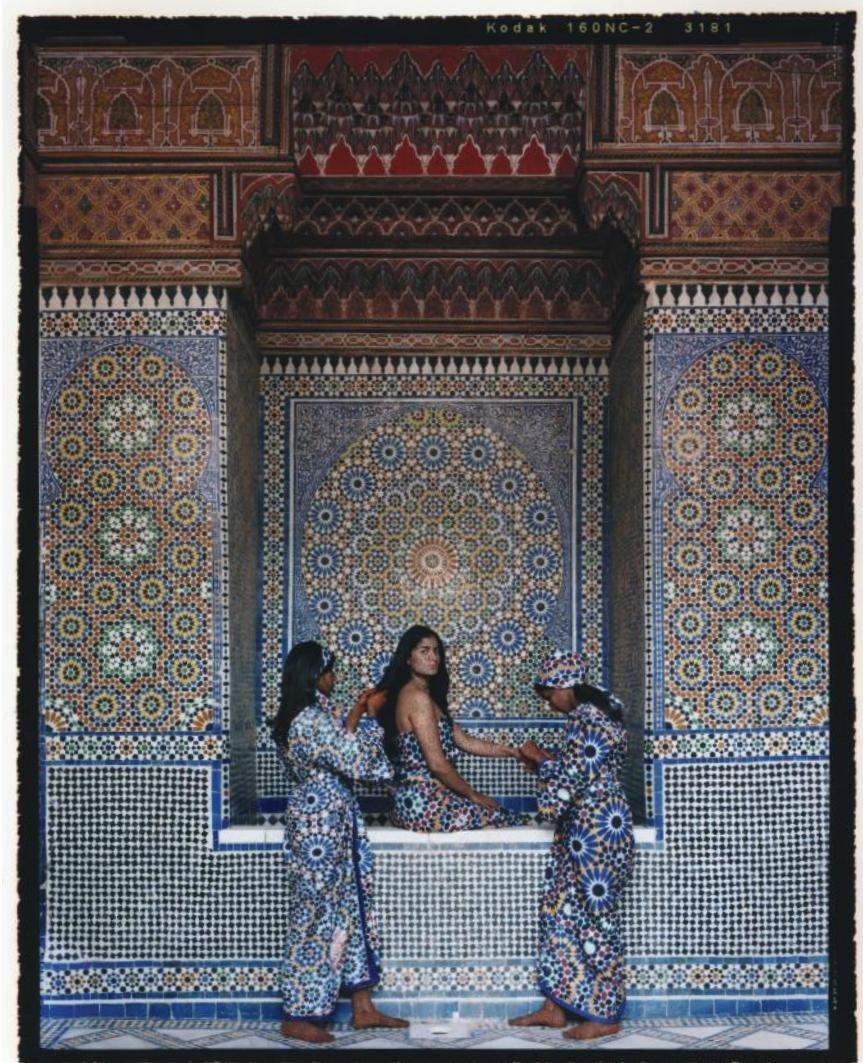
Essaydi's work is represented by many major art sites. Essaydi's art, which often combines Islamic calligraphy with representations of the female body, addresses the complex reality of Arab female identity from the unique perspective of personal experience. In much of her work, she returns to her Moroccan girlhood, looking back on it as an adult woman caught somewhere between past and present, and, as an artist, exploring the language in which to "speak" from this uncertain space. Her paintings often appropriate Orientalist imagery from the Western painting tradition, thereby inviting viewers to reconsider the Orientalist mythology. She has worked in numerous media including painting, video, film installation, and analog photograph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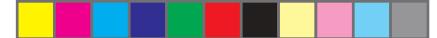
**Harem 14C**, Photography, 101,6x76,2cm, 2009



**Harem 21**, Photography, 101,6x76,2cm, 2009



**Harem 13B**, Photography, 101,6x76,2cm,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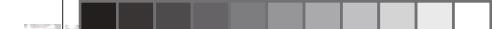


**Harem #10**, Photography, 76,2x101,6cm, 2009



**Harem #2**, Photography, 76,2x101,6cm, 2009





**Part 3.**

**Sissi Farassat**



## Sissi Farassat

시씨 파라사트



전시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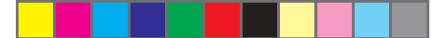
시씨 파라사트는 기존의 사진기법에서 벗어난 새로운 형식의 도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녀는 인쇄된 사진의 배경 위에 금속 조각이나 스팽글을 부착하거나 스티치 작업을 통해 사진의 전체적인 맥락을 제거하는 독특한 작업을 보여주고 있다. 반짝거리는 금속조각과 같은 과장된 환경에 노출된 여성의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시각적 공허감 속으로 빠져들게 한다. 여성의 이미지를 재생산하고 물리적으로 흔적을 남기는 방법은 사회적으로 제한되고 억압받는 여성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나는 이미지의 특정 부분에 작업을 한다. 인물 주변에 하나의 불투명한, 반짝거리는 금속편으로 된 일종의 수직(手織)을 만들어서. 촬영된 주제를 주로 하나의 인물이나 주제로 고립시키기를 좋아한다. 금속편을 도입하면 사진이 좀 더 차지원적인 재질감을 갖게 된다. 내가 자연스러운 작업 재료로 여기는 나의 몸이나, 가족이나, 개인적인 이벤트를 도입해서. 내 예술에 정기적으로 자전적 요소를 도입한다. 전후 상황을 제거하고, 퍼포먼스 행위 안에서 인물을 확고하게 만드는 초월적인 순간을 창작하면서 대상들을 주상적인 방식으로 포착한다. 반짝거리며 보는 각도에 따라 색깔이 다르게 보이는 금속편 사진은, 사진에 담겨진 주제가 갖는 익숙하고 친숙한 성격과 나란히 놓이면서, 장엄한 실내나 화려한 디스코와 영화 속 세계를 연상시킨다."

Sisi Farassat was born in 1969 in Tehran, Iran, and moved to Vienna, Austria in 1978, with her family. She majored in Photograph at School of Fine Arts Photography in Vien, Austria and has worked as freelance photographer since 1991. In 1993, she participated in Summer Academy, Non oldin, located in Salzburg, to engage in international activity. She then flew to Paris and promoted her career by creating works of art involving portraits with the support of the French government. Sisi Farassat, since her debut in 1994, steadily worked as an artist holding exhibitions mainly Austria, France, the U.K., Switzerland and the U.S. Apart from art exhibitions, she worked for magazine called "SIOSEH" to edit and publish her photographs.

Her works of art are seen as unique showing synthesized image of self-portrait or female portraits or highlighting flat images. Recently she exhibited artworks intentionally showing exaggerated photo images by embedding spangles or weaving stitches. These are all images recreated or leaving physical traces, symbolically demonstrating deep-rooted social biases toward women who are prohibited from showing a sense of humor or expressing erotic desire. In 2001, she was awarded bronze medal by Creative Club Austria (CCA) and golden medal in 2002. After that, she received Austrian Minister Award in 2003 and 2004. Her works of art are currently preserved by Fotomuseum Winterthur(Switzerland), Museum Angewandte Kunst(Austria), Museum Modern Kunst Karnten(Austria) and Museum fur Gestaltung Zurich(Switzerl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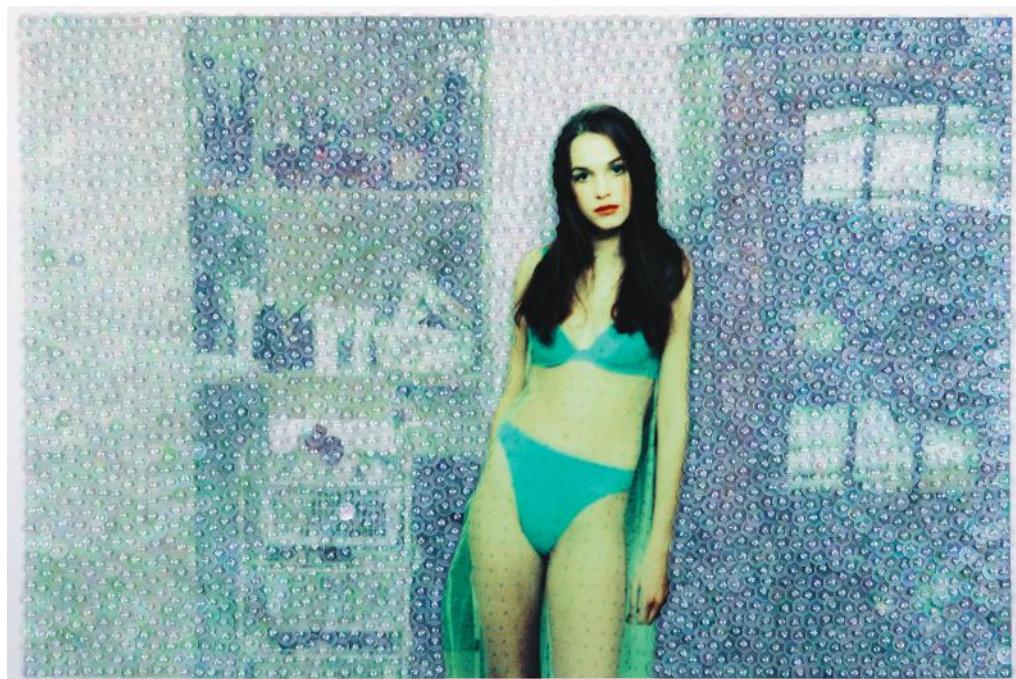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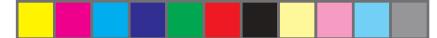
**Stitch 05**, Photography, 61x40,6cm, 2009



**Laura /TV II**, Photography, 33x48,9cm,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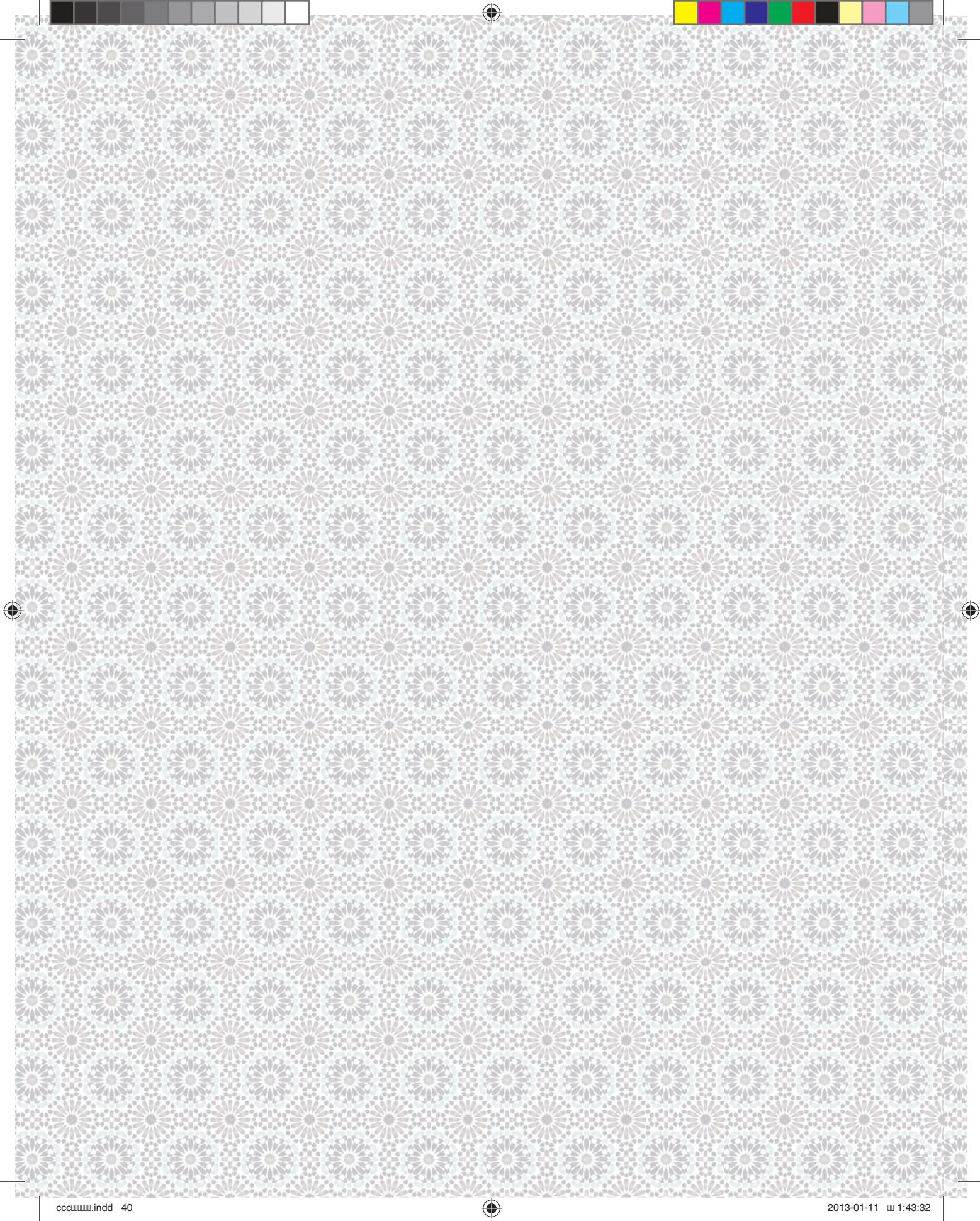
**Behind I**, Photography, 32x49cm, 1993



**Unterwasche**, Photography, 32x49cm, 1993



**Me Me Always Me**, Photography, 32x49cm, 1993





**Part 4.**

# **Lattefa Bint Maktoum**



## Lattefa Bint Maktoum

라티파 빈트 막토움



전시전경





라티파 빈트 막토움은 회화, 드로잉, 사진 등 다양한 매체를 교차시키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서로 다른 장소, 시간, 분위기의 사진을 마치 하나의 실제 이미지처럼 디지털 콜라주로 결합한 뒤 그 위에 유화 물감을 입히는 독특한 방법으로 제작된 그의 사진은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한 반응을 표현하고 있다. 인간은 변화의 일부분인 동시에 그것의 목격자라고 작가는 말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 소개되는 〈Reflection,반사〉는 지나치게 발전하는 도시에 대한 작가의 감정을 표현한 하구 이미지이다. 사진 속 인물은 높게 솟아 오른 빌딩을 등지고 한 곳을 응시하며 서있다. 마치 훈잡스러운 도시를 탈출하여 자연에서 휴식을 취하는 있는 것과 같은 인상을 주는 이 작품은 변화와 발전 속에서 지키고 유지해야 할 것들에 대한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작업이다.

Lateefa was born in 1985. She graduated from Zayed University, Latifa College in 2007 with a Bachelors Degree in Visual Arts. She has been an exhibiting artist since 2004, beginning by creating public art works in addition to creating work for auction in aid of charitable organizations, such as Médecins Sans Frontières, Madrasati Palestine, Art for Sight auction(Noor Dubai).

Lateefa Bint Maktoum is an accomplished multi-media artist skilled in painting, drawing and photography. Her Highness Lateefa has been actively involved in showcasing Emirati art to a global audience, and has curated shows of Emirati and Gulf artists in Australia and Venice, in addition to key exhibitions in the UA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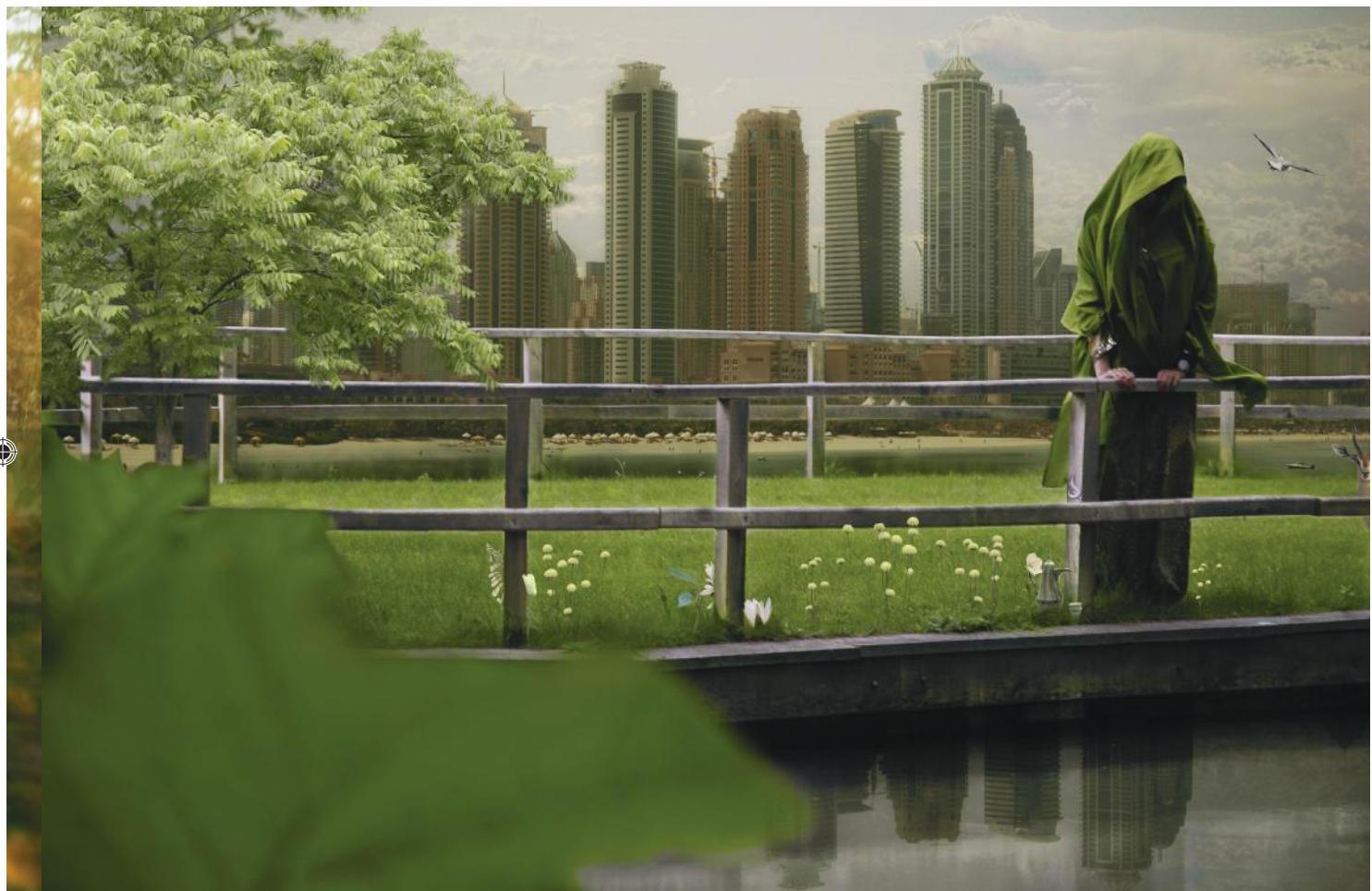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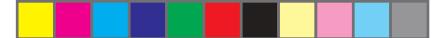
In 2006 Lateefa won first prize in the Ibdaa Media Student Awards in the digital photography category, and in 2010 was awarded the Sheikh Mohammed bin Rashid Almaktoum Patrons of the Arts awards. In 2012 she was awarded the CEO outstanding contribution to the arts by ITP.

Her first gallery show was *Perceptions* at the Third Line gallery in 2006 in Dubai. In 2007, Lateefa started curating exhibitions. The first exhibition that she curated, entitled *Minus Reality*, was shown at Art Attack gallery and showcased at the work of 30 UAE-based artists. It was this show that sparked the idea of the need for a studio for artists and designers living and working in the Gulf, leading to the establishment of Tashkeel.



**Follow the Trail**, Photography, 148x221cm, 2009





**Reflection**, Photography, 148x221cm,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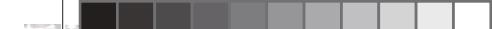


**The Last Look**, Photography, 148x221cm, 2009



**Seize the moment**, Photography, 148x221cm, 2008





**Part 5.**

**Manal Al Dowayan**



## Manal Al Dowayan

마날 알 도와yan



전시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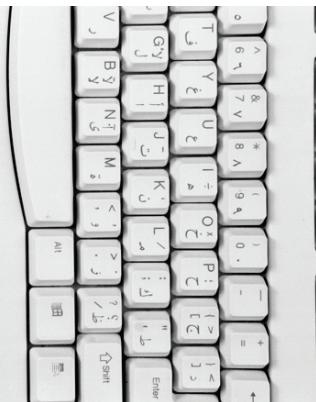


마날 알 도와얀은 규정된 아랍 여성의 역할과 사회적 성에 관한 고민을 작품에 표현하고 있다. 여성의 본질에 관한 그의 질문은 사회·정치적으로 억압되고 제한되어 있는 사우디 아라비아 여성의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동시에 여성에게 가능한 일들과 그들의 잠재력에 대한 이야기를 이중적으로 나타냄으로서. 여성의 전통적 역할과 현대적 역할 사이에 나타나는 공통점을 은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나는 누구인가 (I am)" 시리즈는 자신의 경력을 통해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우디 아라비아 여성들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이다. 여성은 남성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이는 대상이나. 전통적인 보석들로 가려져 차단되고 자연스럽지 못한 모습으로 표현되었는데. 이것은 사우디 여성들의 제한된 사회 역할에 대하여 반어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아랍 여성의 역사가 제게 영감을 주는 것은 분명하지만. 나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용기를 주는 것은 현대의 아랍 여성이다. 교육을 받고 재정적으로 독립하는 여성들이 자신의 미래와 그들의 딸들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는데 온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기를 나는 소망한다."

Manal Al Dowayan was born and raised in the Eastern Province of Saudi Arabia. Over the course of her education, she partook in a range of courses in various art institutions in Saudi Arabia, Dubai, Bahrain and London. In 2009 she was a resident artist at the Delfina Foundation in London and attended the Clore Leadership program. In 2010 she was a resident artist at Cuadro Fine Art Gallery in Dubai, and 2011 she was a resident artist /intern at The Townhouse Gallery in Egypt. She is currently part of the British Council International Cultural Leaders program.

Al Dowayan has participated in numerous touring group exhibitions including the British Council's Common Ground project in 2006, the Saudi-Italian artist exchange, Nawafith(2007/09), Freedom to Create (2011), and Edge of Arabia(2008-11). Mahal has also exhibit her art pieces regionally and internationally, in Spain, Netherlands, Italy, Belgium, Germany, Turkey, Korea, India, Bahrain, the UK, USA, UAE and Saudi Arabia. She won an international call for artists for the Imagining Ourselves anthology in 2003, which was managed by the International Museum of Women in San Francisco. Her photograph Pointing to the Future was exhibited in New York at the 49th Session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CSW) in 2005. Al Dowayan also exhibited her work during the 2009 and 2011 Venice Biennale and the 2010 Berlin Biennale and Contemporary Istanb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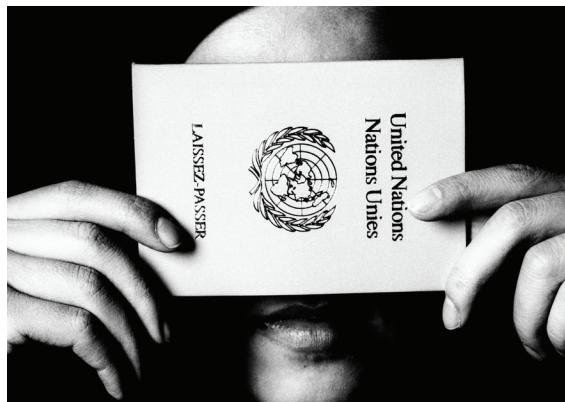


**I am a Computer Scientist**, Silver gelatin fibre print, 76x112cm, 2007

**I am a Saudi Citizen**, Silver gelatin fibre print, 76x112cm, 2007

**I am an Educator**, Silver gelatin fibre print, 76x112cm, 2007

**I am a TV Producer**, Silver gelatin fibre print, 76x112cm, 2007



**I am a UN Officer**, Silver gelatin fibre print, 76x112cm, 2007

**I am a Mother**, Silver gelatin fibre print, 76x112cm, 2007

**I am a Film Maker**, Silver gelatin fibre print, 76x112cm, 2007

**I am an Interior Designer**, Silver gelatin fibre print, 76x112cm, 2007



**I am a Doctor**, Silver gelatin fibre print, 41x51cm, 2007

2012 CAN CROSS CULTURE PROJECT

54



**I am a Writer**, Silver gelatin fibre print, 76x112cm, 2007



**I am a Petroleum Engineer**, Silver gelatin fibre print, 41x51cm, 2007

\* Image Courtesy the Artist and Cuadro Fine Art Gallery  
Copyright Manal Al Dowayan 2007





## Curriculum Vitae



## Shirin Neshat 시린 네샤트

시린 네샤트는 이란에서 출생하였으나 청소년시절의 대부분을 미국에서 보냈다.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에서 미술과 문학을 공부했으며 현재 뉴욕에서 활동 중이다. 네샤트는 베니스, 시드니, 요하네스버그, 이스탄불, 휴트니 비엔날레를 포함한 다수의 주요한 비엔날레에 참여했으며 제49회 베니스 비엔날레(1999)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하였다. 암스테르담 시립미술관(2006), 아테네 국립현대미술관(2001), 비엔나 빈 미술관(2000), 미국 휴트니미술관(1998)등 세계 각지에서의 전시와 더불어 시카고 국제영화제, 샌프란시스코 국제영화제, 트라이베카 영화제를 포함한 다양한 영화제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 Lalla Essaydi 랄라 에세이디

랄라 에세이디는 모로코 출신의 사진작가이다. 뉴욕에서 활동 중인 그는 보스턴 미술관 대학을 졸업 하였으며 사진, 패인팅, 영화, 설치와 같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작업을 선보인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세계 각지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그의 작품은 뉴욕 브루클린 미술관, 보스턴 미술관, 콜롬버스 등에서 소장하고 있다.

## Sissi Farassat 시씨 파라사트

시씨 파라사트은 이란 출신으로 비엔나 사진예술학교(School of Fine Arts Photography)에서 사진을 전공하였다. 파라사트는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프랑스, 영국, 스위스, 미국 등을 오가며 전시를 통해 꾸준히 작품을 발표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 연방장관 상(2004, 2003)과 CCA(Creative Club Austria)에서 금상(2002), 동상(2001)을 수상했다. 현재 그의 작품은, Fotomuseum Winterthur(스위스), Museum Angewandte Kunst, Museum Modern Kunst Karnten(오스트리아), Museum fur Gestaltung Zurich(스위스)등에 소장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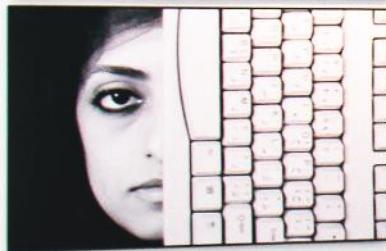


## Latfea Bint Maktoum 라티파 빈트 막토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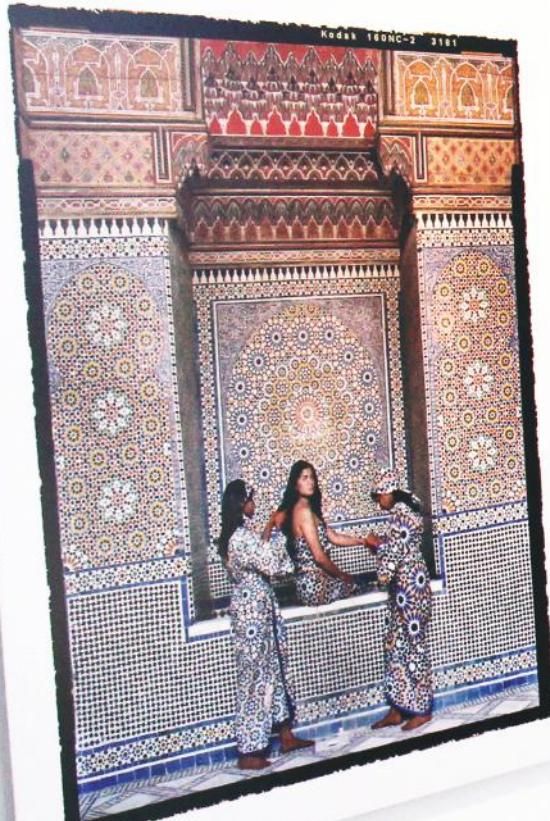
라티파 빈트 막토움은 아랍에미리트 출신으로 아랍에미리트 자예드 대학에서 시각미술을 전공하였으며 입다 미디어 학생 상(2006), 세이크 무하마드 빈 라시드 알막토움 패트론 미술상(2010)을 수상했다. 라티파는 아랍에미리트 비롯하여 베니스 비엔날레(2011), 상해 엑스포(2010) 등 과 같은 국제적인 전시에서도 꾸준히 활동 중이다. 동시에 기획자로도 활동하고 있는 그는 아랍에미리트에서 활동 중인 30명의 작가들과 함께 마이너스 리얼리티Minus Reality 를 기획하였는데 이는 예술가와 디자이너를 위한 스튜디오 타슈킬(Tashkeel)을 설립시키는데 촉매제 역할을 한 전시로 평가받고 있다.

## Manal Al Dowayan 마날 알 도와얀

마날 알 도와얀은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으로 두바이, 바레인, 런던에서 사진을 배웠다. 이집트 타운하우스 갤러리(2011), 두바이 쿠아드로 미술관(2010), 런던 델피나 재단(2009)의 전속작가를 거쳤으며, 베니스 비엔날레(2009/2011)와 베를린 비엔날레(2010)에 참여 하였다. 알 도와얀은 스페인,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영국, 아랍에미리트 등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이다. 그의 작품은 대영박물관, 요르단 국립미술관, 암울 라티프 자밀 재단, 런던 델피나 재단, 아부다비 문화유산청(ADACH), 독일 나두르 재단 등에서 영구 소장하고 있는 작품 가운데 하나이다.









111b



111b





